



광주 남부경찰, '비상응급 특별방법진단'

광주 남부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을 응급실 유지에 있어 최대 고비로 예측해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오는 25일까지, 2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사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은 응급의료진, 국민 안전 확보 및 폭행 등 돌발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9일 남부경찰은 고 응급실 비상벨 이상여부 등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돌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지역 응급의료센터 대상 FTX 실시하는 등 112 신고 즉응태세도 점검했다.

비상응급 대응주간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중증전담응급실 중심 가시적·위력 순찰 및 거점근무, 탐문 등 강화 △응급실 112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 의료행위 방해행위는 엄정대응 △소방 공동대응 등 적극지원 등 맞춤형 특별치안대책을 강화했다.

박찬 기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웃놀이 전통문화축제’

(재)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10일 다목적체육관 1층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연계해 ‘빛다운 웃놀이 전통문화축제’를 32강전으로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늘봄학교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산초등학교 학생들과 빛고을타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웃놀이와 팽이 만들기 등 전통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3세대 통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세대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매년 3세대가 함께하는 전통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우리 학생들에게도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김용덕 빛고을타운 본부장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전통축제인 웃놀이를 3세대가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웃놀이를 좀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 남구 진월동 새마을부녀회, 지역 청소년 치킨 나눔

광주 남구 진월동 새마을부녀회는 10일 수일동담 남구점에서 ‘사랑의 간식 나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행사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맛있는 치킨 30마리를 간식으로 제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박남희 새마을부녀회장은 “성장기 자녀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동들이 치킨을 먹으며 잠시나마 밝게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문희 진월동행정복지센터장은 “고물가 시대에 외식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 아동들에게 치킨 간식을 지원해 지역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져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도시공사, 한가위 나눔행사 마련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4일부터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26곳에 ‘사랑의 쌀’ 10kg 700포대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사진)

앞서 지난 9일에는 도시공사와 상생협약을 맺은 평동농협과 송편을 비롯해 식혜, 쌀과자, 떡 등이 담긴 추석 음식 키트 300박스를 평동지역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쌀 전달 행사에 참여한 이영숙 광전동 경로당 회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해준 광주도시공사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배운식 광주도시공사 사업본부장은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공사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며 “지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은행, 다자녀가정과 전통시장 장보기

광주은행은 지난 9일 추석을 앞두고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에서 다자녀가정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사진)

매년 설과 추석에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광주은행은 올해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 물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사회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특히, 올해에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에 일조하고자 지역 내 다자녀 가정을 초청해 함께 장보기 체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차례상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500만원을 전달했다.

최권범 기자



이정선 교육감,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에 합격증 전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0일 교육감실에서 ‘2024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최고령으로 합격한 3명에 대해 합격증서를 수여했다.(사진)

이날 수여식에는 합격생 가족과 시교육청 간부들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으며, 노학도 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초졸 최고령 합격자인 김모(78)씨는 4번의 도전 끝에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고졸 최고령 합격자 박모(74)씨

는 올해 제1회 시험에서 중졸 학력을 인정받은 데 이어 제2회 시험에서 고졸 합격증을 거머쥐는 쾌거를 거뒀다.

이정선 교육감은 “배움의 열정으로 일궈낸 ‘아름다운 졸업장’을 손에 쥔 여러분의 더 큰 미래를 응원한다”며 “다음 응시생들에게 희망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2회 검정고시에는 1천227명이 응시하고 1000명이 합격해 81.5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김은지 기자



동부소방서, 추석 대비 화재 예방 캠페인

광주 동부소방서는 1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구 관내 NC웨이브 충장점에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캠페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방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전단지과 어깨띠, 홍보 물품을 이용해 NC웨이브 방문객 및 직원 대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진행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화재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및 홍보 전단지 배포 등이다.

문희준 동부소방서장은 “추석 명절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만큼,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광주 광산경찰, 추석 연휴 특별 방법진단

광주 광산경찰은 추석 명절을 맞아 18일까지 금은방, 편의점, 무인점포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방법진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

이번 방법진단은 추석명절 강력범죄 발생 및 112신고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은방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업주 등 대상으로 최근 범죄 발생 사례와 범죄 예방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보안시설 점검, 출입문 시정 장치 안전성과 CCTV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강·절도 범죄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관형 광산경찰서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한 현금다액취급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순찰 활동을 통해 광산구민이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심 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 전기차 화재 대응행동요령 홍보

광주 서부소방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응행동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찾아 ‘와블러’를 부착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

‘와블러’는 작은 움직임에도 흔들거리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는 홍보물이며 주로 대형마트, 편의점 같은 판매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와블러 부착은 지난 3일부터 진행됐으며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있는 주거시설 217개소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과 병행해 추진한다.

서부소방서는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시 대응행동요령 안내를 위해 눈에 잘 들어오는 홍보 와블러를 자체 제작했고, 전기차 충전시설·엘리베이터·출입구·공지사항란 등에 부착했다.

전계철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홍보는 시민분들이 편히 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와블러로 제작했으며 지역 내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 대상으로도 확산 시행할 것”이라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